

# 야구 사령탑 새판짜기... 스토브리그 벌써 뜨겁다

KIA, 김진우·곽정철 등 투수 7명  
이호신 등 내외야 7명 계약 않기로  
다케시 배터리 코치 일본 복귀  
정희열·신동수 코치 등 대대적 개편

‘사령탑의 이동’으로 KBO의 스토브리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 KBO리그는 지난 14일 시작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끝으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19·20일에는 준플레이오프 1·2차전이 진행되면서 포스트 시즌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사령탑을 중심으로 스토브리그도 일찍 시작됐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팀은 NC 다이노스다. 데이비드 야구’에 공을 들여왔던 NC는 지난 17일 이동욱 수석 코치를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전체 선수의 기량을 고루 파악하고 있고, 선수 육성 성과에 데이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 야구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NC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자진 사퇴한 김경문 감독에 이은 NC의 2대 감독이 선임되면서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18일에는 kt 위즈에서 ‘깜짝 인사’가 있었다. 김진우 감독이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기술 자문을 맡기로 했다. 여기에 타격을 당했던 이승우 코치가 단장으로 선임되는 파격 인사가 있었다.

19일에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동시에



양상문, LG서 롯데로 복귀



이강철 두산 코치 KT서 데뷔



NC, 이동욱 코치 깜짝 발탁



LG, 차명석 스포츠해설위원 새 단장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오전 LG가 성적 부진의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양상문 단장을 대신해 차명석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을 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LG발 소식이 전해진 지 채 한 시간도 안 돼 양상문 전 단장의 거취가 확정됐다. 그의 자리는 롯데 감독이었다.

롯데는 5강 싸움에서 탈락한 조원우 감독을 경질하고 양상문 전 LG 단장을 18대 감독으로 앉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과 2005년 롯데를 지휘했던

그는 13년 만에 고향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오후에는 KIA가 ‘새판짜기’에 가세했다.

KIA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우·곽정철·김중환·이윤학·정윤환·윤희영·박희주 등 투수 7명, 권유식 포수 1명, 박효일·오상엽·김성민 등 내야수 3명, 이영욱·이호신·김다원 등 외야수 3명 등 14명의 선수를 내년 시즌 전력의 선수로 분류하고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희열 수석 코치를 필두로 신동수·김태룡·유동훈·백인수·박재용·홍우태 코치와도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 시즌 1군에서 역할을 맡은 정 수석코치는 소통 등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선수단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코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케시 배터리 코치도 일본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등 KIA의 선수단 개편은 진행형이다.

20일에도 새로운 사령탑 소식이 전해졌다. kt의 선임 감독으로 두산 베어스의 이강철 수석코치가 낙점된 것이다. 두산이 한국시리즈를 앞둔 만큼 논란도 있었지만 kt까지 3팀이 새로운 감독체제를 발표했다.

아직 사령탑 이동이 끝난 것은 아니다.

SK 와이번스를 지휘해왔던 힐만 감독이 지난 13일 포스트시즌을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정사로 작별을 예고한 힐만 감독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플레이오프를 기다리고 있다.

두산도 ‘가을 잔치’가 끝난 뒤 새로운 수석코치를 물색해야 하는 등 올 시즌 순위와 상관없이 각 팀의 새판짜기는 계속된다. 또 새로운 감독에 맞춰 새 틀을 갖춰야 하는 만큼 코치진의 연쇄 이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다저스 월드시리즈 진출

2년 연속... 24일 보스턴과 1차전  
류현진, 한국인 첫 선발 예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년 연속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21일 밀워키 밀러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최종 7차전에서 코디 벨린저의 투런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고 야시엘 푸이그의 석 점 홈런으로 썬을 5-1로 이겼다.

다저스는 24일 오전 9시 9분 펜웨이 파크에서 아메리칸리그 우승팀 보스턴 레드삭스와 월드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올해 바리크 최다승(108승) 팀인 보스턴은 월드시리즈 1·2, 6·7차전을 홈에서 개최한다. 다저스의 홈인 다저스타디움에선 27~29일 월드시리즈 3~5차전이 열린다. 두 팀의 월드시리즈 격돌은 1916년 이래 102년 만이다. 당시엔 보스턴이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로빈스를 4승 1패로 따돌리고 축배를 들었다.

다저스는 1988년 이래 30년 만이자 통산 7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NLCS 3차전 선발 투수가 재결된 7차전에서 이번엔 다저스의 선발 투수 워커 블러거가 웃었다. 블러거는 4.2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솜내며 밀워키 타선을 1점으로 막아 승리의 밑거름을 뿌렸다.

먼저 기세를 올린 쪽은 밀워키였다. 크리스티안 엘리치가 1회말 블러거에게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터뜨렸다.

다저스는 공수교대 후 역시 홈런으로 흐름을 바꿨다.

밀워키는 3회 무사 1루에서 병살타로 기회를 그르쳤고, 4회 무사 2루도 득점과는 무관했다. 5회엔 로렌조 케인의 2루타로 세 번째 찬스를 잡았지만, 다저스 좌익수 크리스 테일러의 ‘슈퍼 캐치’에 막혔다.

테일러의 호수비로 힘을 얻은 다저스는 2-1로 앞서던 6회초 승패를 갈랐다.

맥시 먼시와 저스틴 터너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 두 타자가 범타로 물러나 상황은 2사 1·3루로 바뀌었다. 1루 주자 벨린저가 2루를 홈쳐 상대를 압박했고, 타석의 푸이그는 라인드라이브성 3점 홈런을 쏘고 포효했다.

한편 NLCS에서 다저스 선발 투수진의 한 명으로 댄 류현진은 월드시리즈에서도 선발 로테이션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한국인 선발 투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마운드에 서는 이정표를 세운다.

구원 투수를 아우르면 김병현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2개를 끼었다. /연합뉴스



“월드시리즈 간다” 미국 LA다저스 선수들이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7차전에서 밀워키를 5-1로 꺾고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된 후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끝내기냐 막아서기냐

준 PO 3차전... 2패 한화 장민재 선발 ... 넥센 브리검 출격

벼랑 끝에 몰린 한화 이글스가 토종 우완 장민재(28)를 준플레이오프(준PO) 3차전 선발로 내세웠다.

5전 3승제의 준PO를 3경기 만에 끝내고 싶은 넥센 히어로즈는 외국인 에이스 제이크 브리검(30)이 선발 투수로 나섰다.

한용덕 한화 감독은 지난 2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치른 준PO 2차전에서 5-7로 패한

뒤 “3차전 선발은 장민재”라고 발표했다. 준PO 3차전은 2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홈에서 2패를 당한 한화는 3차전에서 배수의 진을 친다. 넥센도 PO 진출 조기 확정을 위해 힘을 쏟을 전망이다.

한화는 김민우, 김성훈과 장민재를 놓고 고민하다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장민재를 3차전 선

발로 정했다.

장민재는 정규시즌 내내 중간계투로 뛰다 9월 3차례 선발로 나섰다. 장민재의 올 시즌 성적은 6승 2패 1홀드 평균자책점 4.68이다. 선발로 나선 3경기에서는 1승 1패 평균자책점 4.02를 올렸다.

넥센을 상대로는 구원으로만 5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11.12로 고전했다.

특히 김하성(3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박병호(2타수 1안타), 임병욱(2타수 1안타 2타점)에게 약했다.

하지만 한 감독은 장민재가 정규시즌 막판 탁월한 제구력을 앞세워 견고한 선발 역할을 한 장면을 먼저 떠올렸다. 장민재는 선발로 나선 3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졌다.

브리검의 등판은 모두가 예상한 바다.

브리검은 2018년 포스트시즌의 서막이었던 KIA 타이거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16일 고척돔)에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4실점 했다. 당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브리검은 준PO에서 KBO 리그 첫 포스트시즌 승을 노린다.

브리검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31경기에 선발 등판해 11승 7패 평균자책점 3.84로 활약했다. 한화 전에서는 2경기 1승 평균자책점 4.50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다.

한화에서는 이성열(6타수 3안타 1타점), 하주석(4타수 2안타 1타점), 재러드 호잉(5타수 2안타 1타점)이 브리검에게 강했다. /연합뉴스